

# 불교문화 아는만큼 느낀다

## 성천아카데미 '절 제대로 알기' 등 가을강좌 잇달아

체감온도는 여전히 한 여름의 중심에 머물고 있지만, 입추(立秋)도 막 지난 요즘 사람들의 마음 한 구석에선 어느새 가을에 대한 기대가 싹트기 시작했다. 이럴때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적 소양도 쌓을 수 있는 즐거운 불교 공부를 시작해 보자. 성천문화재단과 불교신행연구원, 불교문화센터 등에서 마련하는 다양한 가을 강좌는 그 어느때보다 알찬 내용으로 수강생을 맞이할 준비를 끝냈다.

서울대 명예교수인 류달영 박사가 일반 시민의 평생교육을 위해 설립한 성천문화재단은 동서의 스승을 만나는 성천아카데미 주제강좌를 9월 4일부터 시작한다. 이번 강좌에는 우리문화 발원지인 불교문화로 '우리문화로서의 절 제대로 알기'를 주제로 한 강좌가 진행된다.

한국불교예술의 원리, 사찰 이해를 위한 불교사상, 절 그림의 이해, 사찰 장식 문양에 깃든 상징의 의미, 조형세계를 통해 본 불교예술사상, 사찰의 구성과 배치에 담긴 의미 등에 대해 강우방씨(전 경주박물관장)를 비롯, 허균(문화재 전문위원), 김봉렬교수(한국예술종합대), 정병삼교수(숙명여대) 등 전문가들이 대거 강사진으로 나선다.

또 동서문교전강좌에서는 성현들이 남긴 대표적 교전을 석학들의 강의를 통해 배우는 시간도 마련했다. 김상현교수(동국대)가 원효와 의상에 대해, 하이데거의 예술철학 부분은 이기상교수(한국외국어대)가, 정신분석학 개관은 류태열교수(카톨릭대) 등이 맡는다. 오는 29일까지 선착순 접수한다. (02)786-1754

불교신행연구원 불교문화배움터에서도 제2기

불교문화강좌 기초반과 제1기 불교문화강좌 연구반을 9월 1일부터 개강한다. 가람배치, 법당의 구조, 탑, 부도, 불상, 불화, 불교공예 등 불교문화의 진수를 조목별로 가르쳐 주는 기초반 강좌를 통해 불교문화에 전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다. 주간반과 야간반으로 나눠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7시 두 차례 강의한다.

불교신행연구원은 또 이번 가을부터 불교문화연구반도 개설한다. 영산회상도, 괘불, 시왕도, 지옥도, 감로탱 등 각 불화별 전공학자를 초청해 총 15회에 걸쳐 불화에 대한 심층적인 공부를 해 나갈 계획이다. (02)582-6649

불교문화강좌의 선두주자적인 불교문화센터의 가을 정기강좌는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신설강좌로 금박장 백대남씨의 개금강의가 매주 월요일 낮 12시 10분에 열리고, 위빠사나 명상호흡 강좌는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된다. 또 단청 초급반과 연구반, 불화그리기 강좌를 비롯해 선어록강의, 육조단경 등 불교 교리강좌와 생활꽃꽂이, 한지그림공예, 한국무용 등 다양한 강좌가 준비돼 있다. (02)703-0108

이은자 기자(ejee@buddhopia.com)



◇불교문화를 공부하며 풍성한 가을을 맞이하자. 불화 그리기에 열중하고 있는 불자들.

### TV 리뷰

#### SBS '백지연의 뷰티풀...' 보고

여름철만 되면 각 방송사 오락프로의 남량 특집에 단골로 등장하는 테마중의 하나가 '빙의(憑依, 영혼이 옮겨 붙음)'이다. 오락 프로 그래프들이 시청자들에게 더위를 식혀준다는 명분으로 빙의 현상에 대한 올바른 해석과 이해를 뒤로 한 채 천박한 흥미거리로 다루고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 방송된 SBS TV의 '백지연의 뷰티풀 라이프'라는 프로그램에서는 스님을 귀신 쫓는 스님, 협도구로 이 용해 자칭 일반인에게 불교와 스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를 낳게 한다. 이 프로는 최근 방송에서 심령의 실체를 파헤친다며 해외 무속인을 등장시킨 데 이어 지난달 9일과 30일에는 성암과 정음 등 두 스님까지 출연시켜 퇴마(退魔) 시연을 시켰다.

더욱이 7월 9일 방송된 성암 스님의 퇴마 현장 모습은 SBS측에서 직접 제작한 것이 아니라 성암 스님이 촬영해 보내 준 것으로 알려졌으며, 7월 30일 출연한 정음스님이 속해 있다는 범용종은 한국불교종단협의회에 가입되지 않았음에도 자막에 '대한불교 정음스님 주지'라고 소개해 물의를 일으켰다. 이 프로그램을 시청한 일부 불자들이 스님의 소재를 제작자에게 묻자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피해 발생을 우려해 알려 줄 수 없다"는 함축적이고 무책임한 대답만 반복했다.

김주일 기자(jikim@buddhopia.com)

## 불교음악-무용 '세계로'

### 법현스님 11일 수단으로 울 들어 6차례 해외공연

전통 불교음악과 무용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법현스님(동국대 교수, 불교음악연구소장)이 11일 아프리카 수단 공연을 떠났다. 수단 대사관 초청으로 이루어진 이번 공연에서 스님은 영산재 이수자, 동국대무용단 등 10여명과 21일 까지 법패와 전수바라무, 요갑무, 나비무 등 불교음악과 무용을 선보이게 된다.

이에 앞서 스님은 7월 19일~21일 스페인 까지스시와 시와디리알에서 열린 국제민속페스티벌에도 참가해, 음악상과 의상상을 수상하는 등 울해 들어 미국, 일본, 대만 홍콩, 스페인, 수단 등 6차례의 해외공연에 나서 우리 불교에

술의 아름다움을 펼쳐보이고 있다.

이같은 활발한 해외공연은 스님이 지난해 인터넷상에 영어, 일어, 중국어, 한국어 등 4개국어로 접할 수 있는 불교음악연구소 법패 홈페이지(www.pompae.or.kr)를 개설한 이후 본격화 됐다. 이 홈페이지에는 영산재와 법패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이들을 동영상과 음원으로 직접 감상할 수도 있어 국내외인들의 관심이 촉발되고 있다.

"해외공연에서 외국인들의 불교음악과 무용에 대한 반응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하다"고 말하는 스님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캐나다, 일본 등으로부터 7차례의 공연을 초청받은 상태이며, 해외 공연마다 한국 불교예술의 우수성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은자 기자



◇7월19일~21일 스페인 국제민속페스티벌에 참가한 법현스님과 단원들.

### 만해축전 시인학교 현장

## 남녀노소 1백여명 만해 詩로 한마음

9일 저녁, 시낭송대회가 한창인 백담사 만해교육관. 내설악 깊은 계곡의 서늘한 바람도 만해의 사상과 문학을 되돌아보는 참가자들의 열기를 식히지 못했다. 10대 중학생에서 60대 할머니까지, 70여명의 일반참가자들은 만해 스님의 시를 낭송하며 만해 스님의 독립정신과 문헌혼을 사상으로 되살렸다.

만해 한용운 스님이 출가한 곳이자 '님의 침묵', '불교유신론', '불교대전' 등을 집필한 '만해사상의 요람'이자 '만해문학의 고향' 강원도 인제군 설악산 백담사에서 8일부터 3박4일 일정으로 제2회 만해축전 시인학교가 열렸다. 민족작가회의 강원지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시인학교에는 민족작가회의 강원지회 회원 20여명을 비롯해 시인·일반인 등 1백여명이 참가했다.

울해로 5회를 맞은 이번 시인학교는 특히 일반 참가자들의 열정이 돋보였다. 등단을 꿈꾸는 50대 아저씨, 막 문학적 감성을 키우려는 청소년, 학창시절을 떠올리며 새롭게 태어나는 듯하다는 할머니까지, 세대와 직업은 달라도 마음은 하나같이, 시인들로부터 직접 배우는 시간만은 열의로 가득했고, 만해사상 강의를 듣는 눈빛은 뜨거웠다. '나무'와 '다리', '암자'가 시제로 나뉘는 백일장에서 저마다 녹록치 않은 솜씨를 뽐냈다.

96년부터 열린 만해 시인학교에 네 번 참가했다는 김석호 불자(52. 대구 구도회)는 "만해의 시는 어느 것을 읽어도 그 분의 나라사랑·계려사랑·민족사랑이 마음으로 전해온다"며 "각 지역마다 이런 행사가 활발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8~11일 백담사 만해교육관에서 열린 제2회 만해축전 시인학교. 9일 시낭송대회에서는 '나뭇배와 행인'을 주제로 표현하는 등 참가자들의 열정이 돋보였다.

10여명의 중·고등학생들엔 책에서만 대하던 시인들을 직접 만나는 것도 기쁨이었다. 만해 스님의 시 가운데 '나뭇배와 행인'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는 현예인(서울 명일여중 3년) 양은 "선생님, 언니 오빠들의 경험담을 듣는 것 자체가 큰 공부였다"며 "내년에는 고교생 백일장에도 꼭 참가하고 싶다"고 말했다.

남편, 친구와 함께 참가한 이경순(61. 경기도 분당 성파초등학교 교사) 씨는 "학창시절 '님의 침묵'을 즐겨 암송했다. '님'의 마음은 나에게 넓은 포용력으로 다가온다"며 나름대로의 해석을 덧붙였다.

이번 시인학교에는 신경림 교장을 비롯해 이근배, 민영, 이성선, 이상국, 안도현 시인 등 12명이 강사로 참가해 시 창작 강의와 만해사상, 통일에 대한 강연을 했으며, 참가자들은 시낭송 대회, 작가와의 대화, 계곡산행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만해의 열을 시로, 몸으로 느꼈다.

권형진 기자(jinny@buddhopia.com)

## 2000학년도 법사과정 경전 연구원 신입생 모집

### 1. 교과목 및 교수

요일	과목	교수	내용
월요일	민교의세계	허일범교수(전각대)	민교개론과 대일경·금강경의 핵심사상강의
화요일	법화경	박종교수(동산대)	대승경전의 꽃 법화경! 화엄귀일사상 강의

\* 경전개설과목 : 이합경, 반야경, 금강경, 유미경, 법화경, 능엄경, 화엄경, 육조단경, 비교종교, 중론, 해심밀경, 대일경, 금강경 등

### 2. 모집방법 및 전형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접수	강의일시 및 장소
정규반(30명)	① 불교대학(정규)이수자	① 입학원서1통	2000년 2월 7일~	매주 월~화요일
통신반(30명)	② 불교교양대학 이수자	② 주민등록등본 1통	2000년 3월 4일(토)	오후 7시~9시
	③ 과목별 이수 희망자	③ 반명함판사진 3매	(서류전형)	(본연구원 법당)
		④ 불교교양대학졸업증 1통		
		⑤ 자기소개서 1통		

### 3. 개강일시

· 2000년 3월 6일(월), 7일(화) 오후 7시

### 4. 입학금

· 일십만원

### 5. 졸업자격

· 3년과정의 부처님의 법음이 가득찬 경전(매주 2장씩)을 이수자에게 연구원 졸업장(전법장)을 수여함.

### 6. 원서문의 교부·접수

· 본 연구원 사무국 (서울 종로구 견지동 13)  
☎732-1206~8 / FAX 732-1207

법사양성 전문도량 **동산불교 전문연구원**

### 2000년도 도시생활 포교자를 위한(1년과정)

## 한글의식교육원

신입생 모집

### 1. 지도법사 및 교과내용

개강일시 : 2000년 3월 4일(토) 오후 2시	
지도법사 : 권지홍 법사, 문준순 법사	
한글불교의식 I (전반기)	한글불교의식 II (후반기)
· 아침·저녁으로 행하는 예경의식	· 백일·돌·생일의식과 결혼의식
· 사시 또는 형편에 따라 행하는 헌공의식	· 장례의식 (1) …… 일반의식
· 정기적으로 행하는 법회의식	· 장례의식 (2) …… 임종·매장·화장의식
· 송주 …… 장엄염불	· 재공의식 및 영혼천도를 위한 천도의식

### 2. 모집방법 및 전형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접수	강의일시 및 장소
정규반 50명	① 한국불교의식 희망자	① 입학원서1통	2000년 2월 7일(월)~	매주 토요일
	② 포교당 운영자	② 주민등록등본 1통	2000년 3월 3일(금)	오후 2시~3시
		③ 반명함판사진 3매		(동산법당)

### 3. 입학금

· 일십만원

### 4. 원서 교부·접수

· 본 연구원 사무국 ☎ 732-1206~8 / FAX 732-1207 (100-170) 서울 종로구 견지동 13

### 5. 특 전

· 수료자는 동산의식법사 수여

**동산불교 의식교육원**